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라운드 1-2위 결정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4회초 1사 1, 2루 김태균의 안타 때 1루에 있던 정근우가 3루까지 주루 플레이를 시도하다 아웃되고 있다.

## 찬스때마다 아웃! 아웃!



4회초 2사 주자1, 2루 상황에서 김태균이 2루에서 견제구에 아웃되고 있다.



7회초 무사 2, 3루 이대호의 땅볼 때 홈으로 파고들던 김현수가 아웃되고 있다.

# 한국 4강 열쇠는 '발'

야구대표팀의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의 성적을 위해 장기간 '발아구'를 살리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12일~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미국프로야구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다저스와 잇달아 평가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예선전에서 단점으로 지적된 미숙한 주루플레이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뛰는 야구'를 펼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야생마처럼 통통 튀는 한국의 발아구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 신화를 일구는 데

기폭제가 됐다. WBC에서도 기동력을 완벽하게 살려야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폭주'는 금물 =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11일 기자회견과 짧은 간담회에서 '선수들이 너무 날아다닌다'고 말했다. 전후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린 통에 예선에서 다섯 차례나 누상에서 횡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국제대회에서는 좋은 찬스가 자주 오는 게 아닌 만큼 일을 그르치지 않고 점수를 확실하게 뽑으려면 더 시려 깊은 주루플레이가 필요하다. 과감하게 한 베이스를 더 가는 것도 중요하나 투구

수 제한이 있는 대회인 만큼 누상에서 꾸준히 상대팀 주력인 선발투수를 흔들며 득점 기회를 이어가는 게 나올 수 있다.

◇'이순신 타법'과 과감한 도루 = 예선전에서 대표팀은 발 빠른 주자들이 자주 출루하지 못해 도루 2개에 그쳤다. 대표팀 1, 2번 타자인 이종욱(두산)과 정근우(SK)의 출루율은 각각 0.412와 0.429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 일본팀 두 경기로 좁히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종욱과 정근우는 제구력이 좋은 일본 투수들을

상대로 6타수 1안타, 6타수 2안타를 때렸다. 그러나 볼넷은 둘이 합쳐 1개밖에 없었다.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배트를 돌리는 데 집중할 나머지 볼넷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김성한 수석코치도 "기다려야 할 때 타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스윙해 벤치에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타석에 가만히 서서 실루를 기다리는 작전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1, 2번 테이볼 세터의 주된 목표는 범타로 물러나더라도 끈질기게 투수를 괴롭혀 최대한 많은 공을 던지

게 하는 것이나 둘은 이 부분이 부족했다.

9일 일본과 예선 순위 결정전에서 4회 이완우(한화)의 적사(리쿠텐)로부터 볼넷을 골라 김태균(한화)의 적사타 때 득점한 게 좋은 예다. 안타보다 누상에서 상대팀 배터리의 신경을 거슬리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종욱과 정근우는 김인식 감독으로부터 사인 없이 뛸 수 있는 '그린 라이트'를 받은 선수들이기에 출루하면 과감하게 도루를 엿보아야 한다. 일본과 달리 본선에서 볼을 경쟁국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도루 성공 확률도 높은 편이다. /연합뉴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본전의 영웅 봉중근(LG)의 '이치로 향의'는 김인식 대표팀 감독의 사전 각본과 봉중근의 리얼한 연기(?)가 이뤄낸 합작품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봉중근은 지난 9일 도쿄돔에서 열린 WBC 아시아예선전 일본과의 1, 2위 결정전에서 선발투수로 나와 1회 첫 타자 스즈키 이치로(시애틀)를 상대로 초구를 던지려다 갑자기 타임을 부르더니 미국인 주심에게 다가가 영어로 항의를 했다. 관중이 터뜨리는 카메라가 투구에 방해가 된다는 것.

이에 대해 김성한 대표팀 수석코치는 11일 대표팀 캠프가 있는 미국 피닉스 인근 워싱턴프리조트에서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이치로 타석 때 봉중근이 주심에게 항의한 것은 김인식 감독이 미리 지시한 것이었다"라고 '비화'를 공개했다.

이치로가 타석에 들어서실 때마다 엄청난 수의 관중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상대 투수의 기를 죽이는 점을 감안, 오히려 주심에게 항의함으로써 이치로의 리듬을 끊는다는 '치밀한 작전'이었다는 것. 고교 때 미국에 건너가 메이저리그까지 경험하면서 영어가 유창한 봉중근의 연기력도 일조를 했다.

김 코치는 그러면서 "각본대로 됐죠"라고 미소를 지었다. 봉중근은 이날 이치로를 상대로 3타수 무안타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 결국 이는 1-0 완봉승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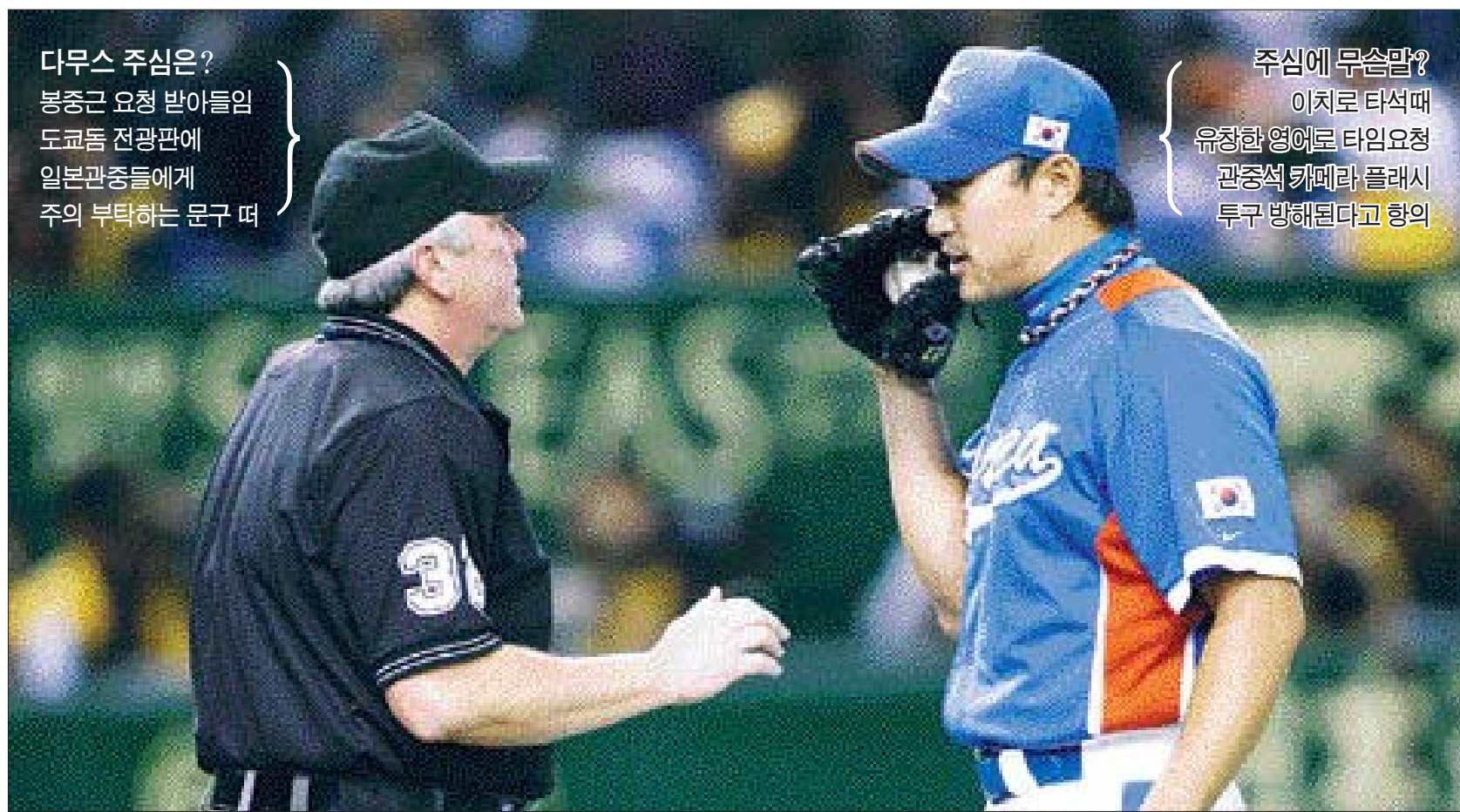
이치로가 패배 직후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에 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라고 말한 데에는 김인식 감독과 봉중근의 '연합 작전'이 주요한 썬이다.

김 수석코치는 또 봉중근이 일본과의 '리턴매치' 경기 등판을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예초 선발이 류현진에서 봉중근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소개했다.

봉중근은 일본전 콜드게임때 이후 분한 기운을 억누르지 못하고 일본전 선발등판을 요청하는 '노래'를 불렀고 결국 코치진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 “봉중근 어필은 치밀한 작전”

김인식 감독과 '이치로 리듬 깨기'사전 약속



다무스 주심은?  
봉중근 요청 받아들임  
도쿄돔 전광판에  
일본관중들에게  
주의 부탁하는 문구 띄우

주심에 무슨말?  
이치로 타석때  
유창한 영어로 타임요청  
관중석 카메라 플래시  
투구 방해된다고 항의

## 앤서니 김-양용은 맞대결

월드골프 챔피언십 1·2R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과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월드골프챔피언십(WGC) CA챔피언십 1, 2라운드에서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친다.

대회조직위원회가 11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한 1, 2라운드 조 편성에 따르면 앤서니 김, 양용은은 어니 엘스(남아공)와 함께 13일 오전 1시25분 10번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9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 우승을 차지한 양용은은 세계 랭킹에서는 147위로 11위인 앤서니 김, 15위인 엘스에 한참 뒤지지만 직전 대회 챔피언 자격으로 조 편성에 배려를 받았다.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0시35분에 한터 메이헌(미국), 래티프 구산(남아공)과 한 조로 출발하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최경주 바로 앞 조에서 마이크 웨이(캐나다), 로버트 카를손(스웨덴)과 함께 티샷을 날린다.

이 대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날드 골프장 블루코스(파72·7천266야드)에서 열린다.

## 한국계 골프 꿈나무 정유빈

남아공 아마추어대회 정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국계 골프 꿈나무 정유빈(17·고3)이 현지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정유빈은 10일 남아공 최대도시 요하네스버그 랜트파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노던 아마추어 오픈 스토틀크 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최종 8언더파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정유빈은 이날 오전 치러진 3라운드에서 1언더파, 21위로 마감한 뒤 오후에 속개된 4라운드에서 버디만 내리 7개를 챙기는 저력을 발휘한 끝에 남아공 랭킹 4위 데릭 페레이라(20)를 1타 차로 꺾고 역전 우승했다.

1세 때 부모를 따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한 정유빈은 10세 때부터 주니어 골프대회에 출전, 10여차례 이상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2007년 9월에는 쟁쟁한 남아공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유일한 국가대표로 선발돼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 KIA-히어로즈 연습경기

'연습경기 첫 실점, 그래도 구름슨'

KIA 타이거즈가 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연습 경기에서 타선의 집중력에서 밀리며 1-2로 패했다. 앞선 두 차례의 연습경기에서 4이닝 1피안타 2탈삼진의 완벽투를 선보였던 구름슨은 이날 선발로 나와 4이닝동안 4피안타로 2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됐지만, 일본 무대에서 쌓은 노련미를 과시하며 홈구장 적응을 시작했다.

투구 밸런스가 좋지 않았던 구름슨은 경기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다.

1회초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간신히 첫 타

# 노련한 '구름슨'... 한국야구 적응

자 전진호를 2루수 앞 땅볼로 잡아낸 구름슨은 이어 발 빠른 정수성을 뚫어 맞는 볼로 출루 시키며 위기를 맞았다. 정수성의 도루에 이은 4번타자 브룸바의 2루타로 선취점을 내준 구름슨은 2회 선두타자 강정호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 폭투까지 하며 또 다시 무사 2루의 위기에 몰렸다.

무리하게 주루 플레이를 하던 강정호가 유격수 이현근의 깔끔한 수비에 3루에서 태그 아웃 되면서 2회 실점 위기를 넘긴 구름슨은 3회 정수성의 빠른

발과 브룸바의 공격력에 묶여 2번째 실점을 했다.

하지만 구름슨은 컨디션 난조 속에서도 4회 6개의 공으로 세 타자를 모두 땅볼로 돌려세우는 등 노련한 투구로 2실점으로 마운드를 막으며 선발로서의 기대를 높였다.

구름슨에 이어 마운드를 넘겨받은 유동훈-조태수-문현정-손영민도 5이닝동안 2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으로 히어로즈 타선을 봉쇄하며 '불펜의 힘'을 과시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선의 집중력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패조의 타격 감각을 보인 채종범이 1회와 6회 안타를 치며 선두타자 진투에 성공했지만 두 차례 병살타가 나오면서 공격의 흐름이 끊겼다. 2, 3, 9회에 도 선수타자가 출루했지만 후속타가 타지 않아 KIA는 경기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 4회 볼넷으로 출루한 이현근이 이재주의 2루타 때 홈을 밟을 게 KIA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빅 쇼이' 최희섭은 2회 이현승의 초구를 받아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지만 이후 6, 9회 2개의 삼진으로 물러났고, 몸 달 풀린 나지완도 3차례 삼진으로 돌아섰다.

KIA는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히어로즈와의 두 번째 연습경기를 갖는다.